‘名作’ 한자리서 보고 느끼자

킨텍스서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

전각가 고암 정병례씨의 설치작품 ‘지수화풍’.

윤도현 作 ‘미륵반가사유상’(왼쪽)과 임경표 作 ‘용봉향로’.

김용우 作 ‘탱화’.

고지도·한지·탱화 등 1500점 전시
제작 과정 시현·체험의 장 마련

3200평 규모의 일산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이 30~40m에 달하는 대형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광개토대왕비 탁본, 얼레빗, 전통 도검, 갈천공예, 옥공예, 대형 청자 등 다양한 작품 1500여점으로 가득 찼다.

전시 시현 공연 체험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이 8월 1일 전통문화 명인들의 작품들로 단장을 마치고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은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가 전통문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 전시다.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에서는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의 각종 유산들을 현대에 되살려 한 자리에 모았다. 결과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체험이나 시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는 고지도 전통한지 오백나한도 한복 하회탈 봉정사 극락전 모형 등 66분야에서 출품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용우씨의 탱화, 박해도씨의 사리합 등 금속공예, 윤도현씨의 미륵반가사유상 등 청자 등 21개 분야 대한명인들의 시연과 체험의 장도 마련돼 전통 문화 생산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각가 정병례씨의 ‘지수화풍’은 여러 점의 전각작품들을 공간에 매달아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해낸다. 첫날 현장에서 직접 조립된 봉정사 극락전 모형은 이광복씨의 작품. 조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바로 옆에서 학생들에게 나무를 자르고 못없이 꿰맞추는 체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봉정사 극락전 모형을 선보인 이광복씨(왼쪽에서 두번째)가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손질하고 있다.

목판으로 재현된 <무구정광대다리니경>, 법당 불단을 장엄할 지화공예, 도자기로 만들어낸 미륵반가사유상, 포대화상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전통문화공연도 매일 열린다. 박상운 명인의 ‘봉산탈춤’(9일), 이종달 명인의 ‘판소리 수궁가’(10일), 김종흥 명인의 ‘장승 퍼포먼스’(11일), 조용석 명인의 ‘산조대금 연주’와 퓨전 국악실내악단 천향의 국악 실내악 공연(12일), 이성원 명인의 ‘거문고 산조’(13일), 예천 통명농요 보존회의 ‘예천 통명농요’ 시연(14일), 이승희 명인의 ‘신칼대신무’ ‘승무’와 송파산대놀이(15일), 박상운 명인의 ‘봉산탈춤’(16일), 조준석 명인의 ‘난계국악기 제작촌 공연’(17일), 김종흥 명인의 ‘장승 퍼포먼스’(18일), 강동렬 명인의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흥부가’(19일), 김동렬 명인의 ‘동해안 별신굿’(20일) 등이 오후 3시에 공연된다. (031)995-8401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건축가가 찍은 전통건축

13일까지 김석환의 ‘사진쟁이 1019’ 展

건축가 김석환씨가 7월 31일~8월 13일 서울 공평동 ‘사진쟁이 1019’에서 전통건축 사진 50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3월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전시회가 마련된 것이다.

부석사 선암사 완주 화암사 봉정사 영산암 등 불국정토를 표현해낸 사찰건축에서부터 ‘앞에는 조정, 뒤에는 침전’이 배치된 경복궁, 종묘제례를 거행하도록 제례의식에 따라 제삿상에 제물을 배치하듯 설계한 종묘, 풍수와 음양오행과 사회 가족제도에 걸맞게 지어진 민간 주택과 주자학의 격식을 갖춘 서원 등을 흑백사진에 담았다.

김석환씨는 “한국 전통 건축은 섭리에 순응하는 우주적 세계관이 적용돼 있다”며 “전통건축 사진을 찍으며 주목한 것은 건축 본연의 과정에 의해 자연과 균형을 갖춤으로써 표상되는 그 존재성의 발현 양상을 중시하는 마음가짐에서 포착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02)723-1977

강지연 기자

김석환씨가 촬영한 안동 봉정사 영산암 사진.

interview

첫 도예 개인전 여는 영운 스님

“장작가마는 지수화풍의 예술”

“선방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차를 마셔오다가 문득 망상처럼 내가 만든 차그릇을 가지고 마시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10여년을 약수암 견성암 내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에 몰두했던 영운 스님이 도예를 시작한 계기다.

옥천요 이숙인 선생에게 사사한지 6년. 영운 스님의 첫 개인전이 8월 16~22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80여점의 다도구와 화병 등 전통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도자기들이 제각각의 자태를 뽐낸다.

500여년 전 사용했던 전통 도예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산청 용화등지에서 흙을 가져와 물 수비(물을 섞어 흙을 걸러내는 작업)를 거쳐 3년 이상 삭힌다. 이 흙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소나무 장작을 사용하는

8월 16~22일 경인미술관 전시
물에 거른 흙 3년 이상 삭혀 작업
불교 전통문양 응용 도자벽화 구상

장작가마에는 한 번에 2500~3000개의 작품이 들어간다. 영운 스님이 스승 이숙인 선생과 함께 한달을 꼬박 작업해야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불 때는 시간만 18시간 걸려요. 도자기를 빚고 작업하는데 하루종일 매달립니다. 매일 12시간 정도는 작업할 거에요.”

스님의 하루는 참선과 도예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시간 나는 틈틈이 참선한다. 작업장 인근에 백련과 50여종의 수련 등을 키운다. 참선을 하고 연꽃을 보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스님의 아이디어찾기 비법이다.

“내가 만든 찻잔으로 차를 우려 마셔보고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을 점검해 다음에 만들 때 개선한다”는 스님은 “장작가마는 지수화풍이 다 합쳐서 기막힌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힘들어도 매력적”이라고 밝힌다.

스님은 앞으로 사찰 문살 등을 활용한 ‘도벽(陶壁)’을 만들 예정이다. “불교에서 전해오는 전통 문양 등을 도상화해 벽화로 작업하고 싶다”는 영운 스님은 “화엄경의 여러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현대적 도자탱화로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02)733-4448

강지연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달마카드
소재 : pp금창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일부고위층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오염된공기,수맥파,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접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